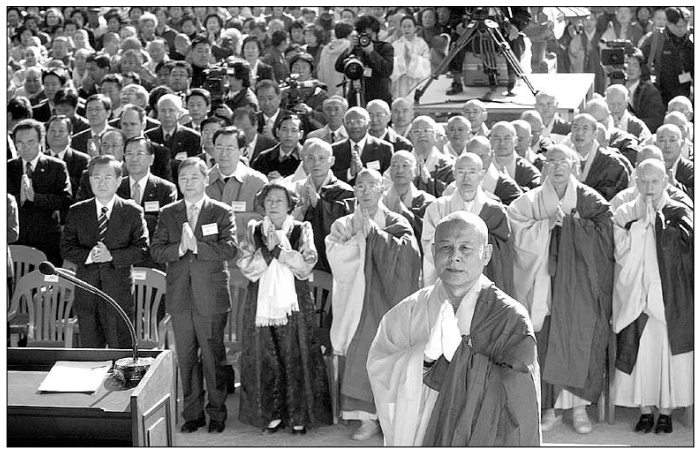


# “공의·화합으로 종단중흥 실현”

### 조계종 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취임...역사문화기념관 개관식도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취임식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개관식이 3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4일 조계사 대웅전 앞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봉행됐다.

취임식에서 종정 법전 스님은 원로의원 원명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안으로 부쟁(不靜)의 덕을 넓혀 모든 대립을 원융통합해 화해를 이끌어 내야하며 밖으로 구세의 덕을 넓혀 사해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취임식에서 지관 스님(맨 앞)이 합장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이러 원로회의 부의장 지혜 스님은 “총무원장 법당 대종사 원적 후종단 안정과 총무원장 선거 원만 회향 공로로 총무원장 원고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법승 스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지관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모든 종도들의 한결같은 희망이자 승가 본연의 모습인 공의에 의한 종단운영을 통해 대중화합을 반드시 실현해 종단 중흥을 이룩해 갈 것”을 약속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황인성 시민사회수석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갈등을 극복해서 통합을 이루고, 경쟁과 균형을 조화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내일을 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했다.”

특히 취임식 3일 전 입적한 박태화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추사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회장 법타 스님이 대독해 눈길

을 끌었다.

박태화 위원장은 “나라의 통일과 불교발전을 위한 총무원장스님의 행업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총무원장 취임식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취임식에서 이어 진행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개관식은 제막식, 기록물전시 관람 및 시설순방 순으로 진행됐다. 남동우 기자



자승 스님, 동선 스님, 정만 스님, 탁연 스님, 지원 스님, 도진 스님, 심경 스님

## 총무 자승 기획 동선 재무 정만 스님 등

### 조계종 새 집행부 구성

조계종 총무원 제32대 첫 집행부 인선이 이뤄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새

총무원장에 자승, 기획실장에 동선, 재무부장에 정만, 문화부장에 탁연, 사회부장에 지원, 호법부장 서리에 도진, 사서실장에 심경 스님을 11월 16일과 17일 각각 임명했다.

또 총무국장에 정범, 기획국장에 성목, 감사국장에 선문, 재무국장에 효웅, 사회국장에 혜웅, 호법국장에 경우,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에 성효, 호법부 상임감찰에 탄공·현중, 호법과장에 지록 스님을 임명했다. 지관 스님은 임명장을 전달하며 “봉사하는 정신과 사부대중을 받드는 자세로 총무행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남동우 기자

## WFB 와나미티 회장 지관 스님 예방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와나미티 회장이 11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와나미티 회장은 또 같은 날 진각종 총무원과 진선여승교를 방문했다. 남동우 기자

# 가치·행동기준 반듯해야 ‘발전’



“종단 법령은 종도들의 가치기준과 행동기준이며, 총무처리의 원칙과 기준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근본계율을 보완하고 나아가 바를 제시하는 지침이기도 합니다.”

조계종 <법령집> 머리말 첫 번째 단락이다. <법령집>에 따르면 ‘종헌’은 종도의 총지·종통에 입각한 공감대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종단 내 최고규범이자 근본규범으로서 종단 내 최고법이다.

‘종법’과 ‘종령’은 종헌에 규정된 내용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하위법이다. 따라서 32대 총무원 집행부가 총무처리의 원칙과 기준인 ‘종헌’ ‘종법’ ‘종령’ 등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종단이 나아가갈 바를 제시할 수 있다.

## 상·하위법 모순, 세부규정 미비 등 많아 농지법·자연공원법 개정 등 현안도 수두룩

이 외에 ‘국도의이용및계획에 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도 개정이 필요한 법률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자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상설행자교육원 설립 및 운영 방안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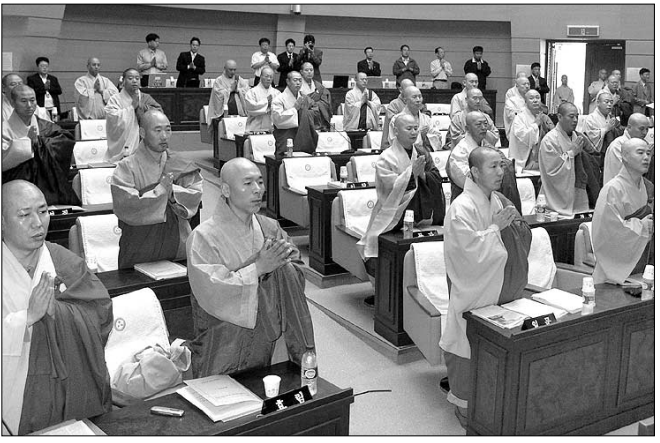
포교원 위상 강화를 위해선 ‘신도법’ ‘포교법’ 등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사찰에서 신도 기본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해 교육 실시 여부를 주지 인사고과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 국가관계법령 개정도 시급

국가관계 법령 개정 추진도 32대 집행부가 해야 할 몫이다. 대표

## 교육원 포교원 위상 강화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

교육원, 포교원 위상강화 및 종교인 관련 법령 중 제·개정이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사람등록 및 관리법’이다. 현재 종단 사찰의 7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사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사람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위원장 효림)’가 구성돼 개정을 만들었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중앙종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조계종 종헌준법 미비에는 중앙종회의 책임이 크다. 사진은 중앙종회 개원 장면. 현대불교 자료사진

## ‘다툼소지’ 빌미 주어진 안돼

현행 조계종 종헌준법은 상충되거나 규정이 미비한 조항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많고 법을 시행하는데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다.

종헌 117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불교사회복지원’을 둔다. 하지만 조계종은 현재 ‘사회복지재단’을 법인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는 총무원법 17조에 근거한 것이다. 즉 상위법인 종헌과 하위법인 총법칙이 불일치하고 있는 경우다.

또 종헌 52조에 따르면 총무원에 총무원장,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 문화사회부장, 사업부장, 호법부장 각 1인을 둔다.

그러나 총무원법 7조 중무회의는 총무원장,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 문화부장, 사회부장, 호법부장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현재에 맞게 종헌 52조 ‘문화사회부장’을 ‘문화부장’과 ‘사회부장’으로 고쳐야 한다.

호계원법도 손질할 부분이 있다. 호계원법 2조에 따르면 초심호

적 국가법령은 ‘농지법’.

현행 농지법으로는 전통사찰이 아닌 일반사찰은 농지를 소유할 수조차 없다. 따라서 농지를 종교용으로 전용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대폭 감면해주고, 전통사찰 경내지 경우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 내 전통사찰의 불가피한 불사를 제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쪽으로, ‘도시공원법’과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은 도시공원과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신·증·개축을 허용하는 쪽으로 추진해야 한다. ‘산지관리법’도 개정해 전통사찰의 산지전용 및 전용부담금 적용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현재 예산 편성권은 교육원과 포교원에 있지만 총무원 기획실의 조정을 거쳐 총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교육원 포교원 모두 현 시스템에서 이러한 과정은 인정하지만, 보다 많은 재정적 자율성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도록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원 위상 강화를 위해선 승려 기본교육 틀과 제도 확립·강화가 필요하다. 승가 기본 정신인 ‘공동체 정신’이 점점 희박해지는 현실에서 기본교육을 강화해야만 종단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물적 토대가 바로 ‘상설행자교육원 설립’.

연간 운영비만 20~25억원 정도

## 이해관계 얽혀 상정도 못해

총무원 관련 법령 중 제·개정이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사람등록 및 관리법’이다. 현재 종단 사찰의 7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사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사람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위원장 효림)’가 구성돼 개정을 만들었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중앙종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법인관리법’ 신설도 시급하다. 종헌 9조 3항에 따르면 조계종 승려가 사실사람을 장권했을 때는 반드시 종단에 그 사실(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법인이 설립했을 때는 그 종단에 당해 법인이 조계종 관장에게 있음을 명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법리적 논란 및 종단재산 유실 가능성이 있다.

종단 안정 및 수행풍토 조성 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는 승려노후복지. 승려노후복지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종헌에 승려노후복지이념과 방향을 정립하고, 종법에 승려노후복지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도교육 및 조직 강화를 위해 신도조직의 모법(母法)인 ‘신도법’ 개정과 관련법인 ‘사찰운영위원회법’ ‘신도단체 등록 및 관리법’ 등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 또 교구활성화를 위한 ‘총무원법’ ‘지방종정법’ ‘교구자치법’ 제·개정도 필요하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연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신(新)개념의 전문지도자를 양성하는 - 원광디지털대학교

# 당신의나이+4년= 새로운 미래

인생의 재설계를 위해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The Economist 2002년 6월호 표지 글)

전통깊은 차(茶)세상을 향기롭게 바꾼다

## 차(茶)문화경영학과

21c 차문화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내최초 4년제 학과

- 중국전통차문화 등 차관련 학과 및 단체와 활발한 교류활동
- 차관련업체(제다,차집,차도구전문점등)와 산학협력을 통한 체험교육 강화
- 전국 50여개 대학원과 연계 교육 실시
- 전통차(茶)예절지도사,선명상지도사 자격증 등 취득 가능

21c e-세상에 부는 디지털 한복바람

## 한국복식과학학과

한국최초, 세계최초 인터넷 교육으로 新 한복인을 키운다.

- 인터넷수업, 실습센터 보충수업을 통한 Multi-Way 교육시스템
- 한국복식, 미학, 공예학 분야등을 균형있게 학습
- 지역별 학과협력실습센터
- 김혜순 한복 / 하늘물빛 / 월간한복 / 민속한복학원 / 디오 한복 / 윤정 한복 / 웨딩한복사랑 / 최경희 패션 전문 교육원 등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전통공연예술의 연희자와 지도자를 양성하는

## 전통공연예술학과

전통공연예술 전반을 손쉽게 깊이 있게 공부하며 4년제 대학교 학위 취득 가능

- 전통타악, 전통무용, 전통성악 등 전공을 불문하고 자유롭게 교과목을 수강하는 전인교육
- 전국 30여개 교육센터와 연계한 삼박자교육시스템
- 타학과에 개설된 다양한 교과과목 이수가능
- 사물놀이 지도사, 전통생활문화지도사 자격증 등 취득 가능

모집학과

<b>웰빙건강학부</b> 한방건강학과 요가·명상학과	<b>공무원행정학부</b> 경찰학과 공무원행정학과
<b>사회복지학부</b> 사회복지학과 약물재활복지학과(신설)	<b>문화예술학부</b> 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茶)문화경영학과
<b>경영학부</b> 일군경영학과(신설) 부동산경영학과	<b>게임학부</b> 게임학과

□ 원서접수기간 : 2005년 12월 1일(목) ~ 2005년 12월 15일(목)  
 • 기간내 접수하시면 입학금 (200,000원) 면제혜택을 드립니다.  
 • 원서접수 전형료(30,000원)는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 입학상담 : 080-285-2854 / 1588-2854

□ 홈페이지 : www.wdu.ac.kr

□ 지원자격, 세부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학상담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전**

- 학교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정규4년제 대학교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가능
- 일반대학교의 1/3수준의 저렴한 등록금과 다양한 장학혜택

- 각 지역별 교육센터를 통한 학습활동 지원 및 졸업 후 대학원 진학 가능
- 학자금 융자 가능 및 연말정산시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
- 재학생 병역연기 혜택

원광디지털대학교  
WONKWANG DIGITAL UNIVERSITY

인터넷 검색창에서 원광디지털대학교 원광 디지털 서포터